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사진너무 많아.

“원정 대성사 유지 받들어 무명 밝히는 등대 돼야”

창종조 원정 대성사 27주기 멸도절



총지종 창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27주기 멸도절 주선불사가 오는 9월 8일 서울 종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효강 종령에하는 멸도절에 즈음하여 “총지종 종도들은 종조 원정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치관 혼란의 이 시대에 무명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임상으로 잊지 말고 화합과 단결로써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대한국밀교의 개척자이며 정통밀교 종단인 총지종은 창종한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鑑)이다.

1980년 9월 8일 원적에 들기까지 대성사는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

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총지종과 진각종의 산파 역할을 하며 한국 현대 밀교사 수립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원정 대성사는 초창기의 교리적, 행정적 착오를 반성하고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종수법을 비롯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총본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종지사를 비롯해 전국 30여개소에 사원을 건립, ‘즉신성불’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대성사는 《종조법설집》을 비롯하여 총지종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비리밀다경》을 번역 발간하였고, 대장경의 핵심을 모은 《불교총전》 등을 편찬하기도 했다.

〈관련특집 12면〉

“아름다운 전당에서 밀법 홍포”

내달 11일 포항 수인사 현공불사 예정



총지종 포항 수인사(주교 지공)는 다음 달 11일 수인사 서원당에서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종단의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을 모시고 현공불사(낙성식)를 봉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사원신축사 마무리 한 수인사는 연건평 380평 지상 4층의 아름다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립됐으며, 경북지역의 수행

과 문화, 복지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현과 밀법 포교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총지종 전당건설 위원회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 제석사에서 전당건설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수인사 신축과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설계를 확정한 바 있다.

수인사는 총기 원년 신관동 소재 3층 빌딩 중 2층을 임대하여 포항선교부로 개설하고 종기 3년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매수하여 수인사 사찰로 사용해 왔다. 수인사는 전 종령 록정 대종사, 복지화 전수가 교화했던 유서 깊은 곳으로, 교도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한 사원이기도 하다.

수인사 산축설계는 부산 덕화사를 설계한 ‘경주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한 바 있다. 경주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는 “부산 덕화사를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인사도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설계 시공했다”며, “스승님과 교도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종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통신원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10월경 총보통신원 발대식이 마련된다.

종단 중앙교육원은 그동안 종보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총지사 교도 주축의 종보 편집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현재 30여명의 통신원 지원자가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총보통신원은 종보 모니터링

과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 개진, 각 지역 기사작성과 제보, 소속교구 교도들의 신행답이나 미담 등의 소식도 전할 예정이다.

종보 통신원은 종보와 관련한 관심과 조언을 통해 종보의 질적 양적 확대에 기여함을 물론 종단과 교도간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종단발전에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지종 정각사 바리밀 공부방 아이들이 8월 27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전시회에서 동심을 함뿍 담은 작품을 발표했다.



불교총지종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충주호 리조트에서 제7회 경로법회를 개최했다. ‘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경로법회엔 전국 각 교구 65세 이상 어르신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경로법회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입제식과 노래경연대회, 저녁정송, 연예인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를날엔 은천육과 회향식, 관불이 이어졌다.

이번 법회에 참석한 권영순 어르신(82·정각사)은 “종단에서

경로잔치를 마련해 주어 아주 즐겁고 흡족하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각처에 흩어져 지내던 도반들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지정 정사는 “종단 교도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각 지역 사원 교도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경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준비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관련 특집화보 10면〉

종조법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외형(外形)은 내성(內性)을 닮아 난다. 즉 육체는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 일체는 유심조(唯心造)다. 화복도 그 마음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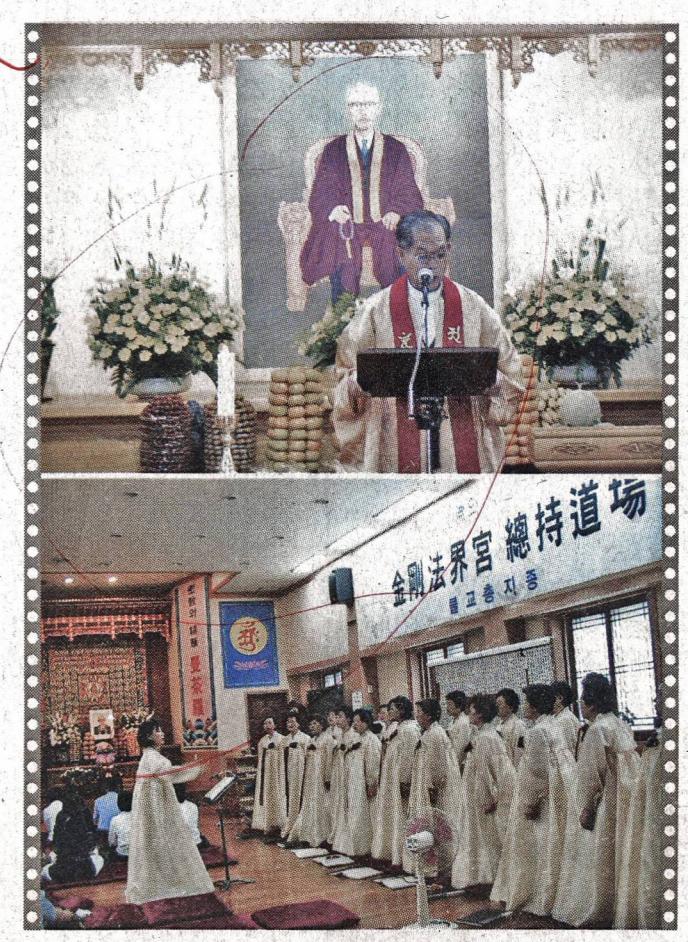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님의 멸도절 추선불사에
많은 교도들의 동참 바랍니다.

- ◆ 일 시 : 총기36년(2007년) 9월 8일
- ◆ 장 소 : 전국 각 사원
- ◆ 서울·경인 교구는 총지사에서 지방은 각 교구별·사원별로
추선불사를 봉행함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 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나 접근 방식도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고 있다.

매년 정부는 사회복지분야에 예산비중을 확장하고 있으며, 행정부분에서도 사회복지가 핵심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즉 주민들의 복지에 열민족 기여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당락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봉사와 희생정신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세계는 선진국의 척도를 경제적 조건에 의해 평가하지만 다른 중요한 척도로 인권과 생명존엄, 환경, 사회복지 등의 부수적인 요인에 의해 평가의 항목이 다양화 되고,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의 수준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정책적 대안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종교단체들도 봉사와 자비실천의 장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디시밀레 포교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종교적 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항은 조만간 없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최근 개신교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을 통한 포교의 다변화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방문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포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며 불교계에서는 불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의 통한 자리를 열민족 실천하고 있는지 자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1세기 포교전략은 소극적, 권위적 포교전략이 아니라 적극적, 다양한 포교전략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봉사와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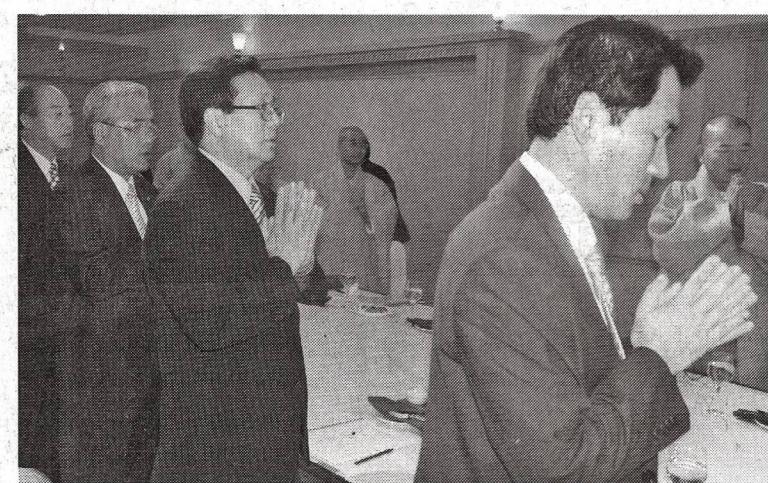
유능한 종무원 선발을 위한 체제 정비

종단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종무원 선발과 처우 개선 역시 주요한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종지종은 통리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종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종무원들이 제 칭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종단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종지종의 종무원들은 기존의 관습적인 업무를 관성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종무원들만으로는 정체된 종단의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종단을 꾸려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종단은 하루속히 유능한 종무원 선발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종단행정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우선 종무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종무원들의 급여는 사회의 평균적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현재의 종무원보수로는 경력이 오래된 종무원들의 보수로도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신참 종무원들의 경우는 종무원 자신의 생활비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러한 보수로는 유능한 종무원을 선발할 수도 없고, 계속 종단에 남아있게 할 수도 없다. 종무원들의 급여 현실화와 동시에 종무원 임금의 능력별 차등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종무원들의 급여 및 복지체계는 능력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혼인, 자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유능하고 하는 일이 많은 종무원이 그렇지 못한 종무원보다 도리어 급여 및 복지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있다. 하루빨리 종무원 선발 및 급여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여 경쟁력 있는 종단행정 체제를 갖추어서 교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원송 통리원장, BBS 재단이사회 참석

BBS 신임 이사장 영담스님 선출



원송 통리원장은 지난 8월 20일 불교방송 재단이사회 주최제 63차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조계종 중앙

종회 의원이고, 부천 석왕사 주지인 영담스님이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영담스님은 부산 범어사에서

출가해 현재 석왕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동국대 재단이사 등을 맡고 있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또 지난 3월 이사 임기가 만료된 서울 관음사 주지 종하스님을 이사로 다시 선임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 경과보고에선 전차수 이사회 회의록 보고를 비롯해 방송 경영현황 보고, 불교종합미디어센터 건립 진행 상황 보고, 세무조사 결과 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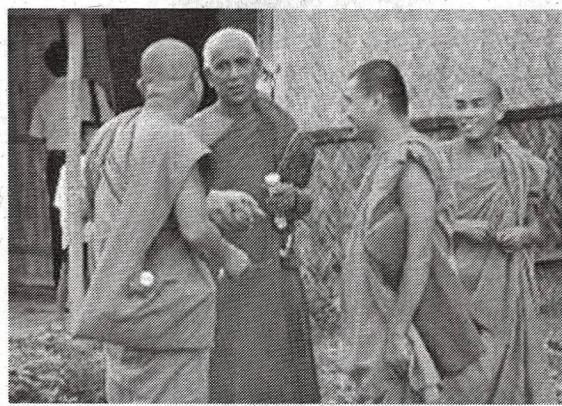
이어 열린 토의안건 시간엔 이사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 사보발전방안 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세계속의 불교 ②

Buddhism in Bangladesh (বাংলাদেশ বুদ্ধবর্ষ)

방글라데시 2004년도 인구는 1억2천 5백만명으로 불자는 1백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치타공, 치타공 헬트렉, 코밀라, 노악할리, 콕스 바자와 비리사에서 살고 있다. 방글라데시 불교는 오스틱, 티베토-버어마, 드라비다, 아리안의 네종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이다.

A Village Buddhist Temple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의 불교마을과 사원



역사가들에 의하면 티베토-버어만은 퓨, 칸안, 테트(চার্কমা) 3종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크만은 역사적인 땅인 치타공 헬 트레에 살고 있으며, 칸안은 치타공의 남동쪽에 살고 있는 타힌(মারিকেন্স)로 알려져 있고, 부루나 불교로 잘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일반 불교는 5천년 동안 살아온 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르바바르타와 팔리어문학권인 마드하데시나 마즈히마데시로 잘 알려진 아리안에서 발생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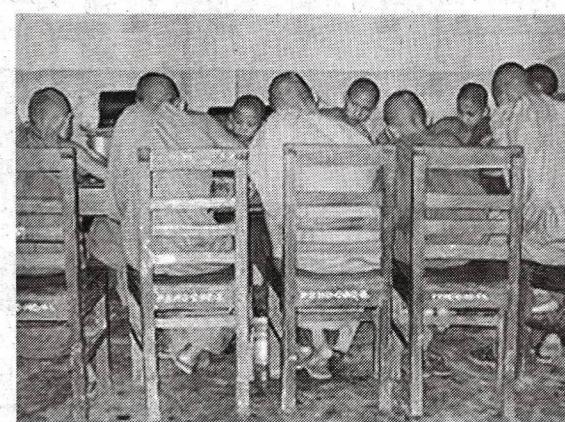
부처님은 B.C 6세기 경에 마즈히마데시 혹은 마하살의 아래지역인 카장갈 마을의 동쪽인 중부지역, 살라라바티(সলারবতি)강의 남동쪽, 사타카니카마을의 남쪽, 투노의 브라হ만 지역의 서쪽, 우리 라트하자 산의 북쪽에서 불교를 설하였다. 부처님은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 걸어서 이 지역들을 여행하였으며, 불자들은 부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셨고,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세상을 보았으며, 온 세상의 불국토를 위해 노력하였다.

드한야와디 역사가는 부처는 미하 브리트 무니로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마우리스 콜리스는 그의 저서 「위대한 인물의 땅」에서 부처의 상은 1784년 무하마의 정복자들에 의해 만다라바로 옮겨졌다고 전한다. 안구타라라니카야와 마즈히마니카야 부처는 카잔갈에서 왔으며, 그의 추종자들에게 두 가지의 계시를 주었다. 어떤 계시가 주어졌는지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단지 부처의 생존시에 불교가 방글라데시에서 성행된 것은 한 두 명의 방칼인의 스님에 의해 불교가 전파되고 배우

게 되었다고 추측한다.

우리는 불교가 아소카왕 전성기 시대에 방글라데시에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마티리무트리의 3번째 불교 전시자, 소나과 유타리는 수바나비후미에 있었고 남동아시아에 불교를 전파하였다. 최근 한 두명의 학자에 의하면 드하카 주변인 담라이에서 아소카왕의 돌기둥이 발견되었으며 여기서 보티브 작품이 발견되었는데 기원전에 불교가 방글라데시에서 존재하였다는 추측을 갖게 한다.

방글라데시의 불교전파를 논하기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결집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제1차 결집은 마리기하에서 열렸으며 아지티사트루왕은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기 위해 수년동안 순례를 하였다. 두 번째 결집은 마이살리에서 열렸으며, 칼리소카왕은 백년동안 통치하였다. 세 번째 결집은 마티리부트리에서 열렸으며, 미우르얀 아소카왕이 집권하였다. 그 기가동안 많은 지역에서 불교가 성장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카니시카왕의 지도 아래 불교를 송성하였다. 결집에서는 트리피티가를 바로잡지 못했지만 부비하-샤스트라로 알려진 논서를 만들었으며, 산스크리트어를 새로운 기초적인 대승교리로 인정하였다. 결집의 영향으로 마하바그호사, 마르스바, 부쉬미트라와 같은 작품의 영향으로 대승불교는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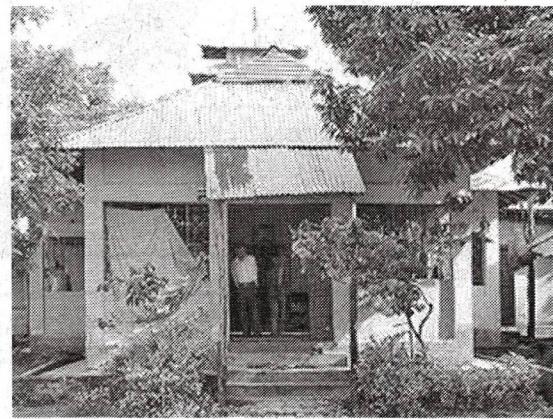
대승불교는 자바와 보르네오의 남동아시아까지 전파되었다. 대승교단의 도래로 불교의 교육적 센터가 나란다에 설치되었다. 나가주나는 여기에서 수십년 동안 생활하였다. 굽타왕조시기에 나란다 대학은 불교, 논리학, 철학, 법률, 의학, 요가, 연금술, 접선술 등을 교육하였으며, 3천에서 1만명의 스님을 교육하는 큰 규모의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나란다 대학은 몇 개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국왕들의 지원으로 국제적 학문의 장소로 유명하였으나, 1,200년 경에 투르트족에 의해 파괴되었다.

굽타왕조 초기에 방글라데시 불교의 성장은 기원전 후에 방글라데시 독자적인 불교로 성장하였다. 현재 그 시대의 불교는 대승불교의 교리를 따랐다.

파해인은 갠지즈강의 남쪽에 위치한 참파왕조

는 대부분 대승불교를 신봉하였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7세에는 고우다 왕시기에 방글라데시에 대승불교 다양한 분야의 불교가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7세기에서 12세기까지 방글라데시는 대승불교의 황금시대였다.

불교승려들은 파티모크하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으며, 수행자들은 불교의 사상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두르카, 칼리, 마크스미, 마나사, 카르타카 등 많은 다른 신과 여신을 승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불교의 전통과 무관한 많은 제례나 의식을 따르고



있다. 많은 불자들은 방글라데시의 타락한 현상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치타공은 아라칸의 고대 수도인 모로항을 방문하였으며, 9개의 사원에 설치된 하마무니의 불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마하무니 불상의 원형을 그리고 크기와 규모등 상세한 조각을 하여 방글라데시로 돌아온 후 마하무니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교단을 조직하지는 못했다. 마하스타비르도 버어미에서 불교조각을 공부하여 돌아와 방글라데시의 타락한 불교를 타파하려 하였지만 실패하게 되어 방글라데시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미래의 불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라드후 메트, 브하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하며 고민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와 팔리어에 능통한 사라메드 마하스타비라는 순례자로서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상하라즈 사라메드하 마하스타비를 만나 방글라데시의 불교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그를 방글라데시로 초청하였다.

그는 치타공에 머물면서 많은 불자들을 포교하였으며 7명의 스님들을 배출하였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인 무카삼파다 의식이었으며 소승불교의 시작을 알렸다. 아라칸의 고대 왕들은 종교적으로 신봉할 수 있는 특별한 직위를 받은 유명한 브하루스에게 전례없는 경의를 표하였다. 사라메트하는 영국 정부에 의해 높은 지위를 얻는 영광을 받았으며 상하라즈 니카야로 알려진 소승불교의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bangladesh-txt.htm>) 번역 지정 정사

총지동의보감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



김장규 원장
(서초실버의원)

재활 치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원인

현대 사회로 발전하면서 교통 사고, 산업 재해, 스포츠 손상 등 각종 사고가 증가하여 외상성 뇌손상 환자(Traumatic Brain Injury, TBI)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적수 손상과 더불어 뇌손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달리 총상 사고보다 교통 사고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부분의 외상성 뇌손상은 폐쇄성 뇌손상이며 이 경우 뇌는 달달성 또는 미만성(diffuse) 손상을 받게 되므로 다양한 신체적,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나타내게 되어 이 환자들의 재활 치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분류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손상 정도는 주로 충격의 가속(acceleration)과 감속(deceleration)에 의한 전단력(shear force)의 정도에 직접 관련이 있으며 회전력 등에 의한 손상이 최종적인 손상 정도에 부수적으로 기여합니다. 임상적으로는 경도, 중등도, 중증 및 식물 인간 상태의 4단계의 손상군으로 분류하는데 먼저 경도(mild)의 뇌손상은 가장 흔한 뇌손상으로 과거에는 뇌진탕후증후군(postconcussion syndrome)이라 불리었던 것으로 뇌손상을 받을 때 짧은 시간의 의식 소실이 있으며 계속적인 국소적 신경학적 결함은 없으나 미미한 신경 심리학적, 행동적 결함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부의 환자에서는 신경 해부학적 병변이 발생하고 영구적인 손상이 지속된다며 알려져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징적 증상으로는 두통, 혼수, 집중력의 저하, 기억 상실, 피로 및 자극 과민성(irritability)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정되고 있는 진단 기준은 20분 미만의 짧은 의식의 소실, 뇌손상 후 의식수준을 평가하는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가 13점 이상, 국소적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뇌 단층촬영(CT 또는 MRI)상에 이상 소견이 없으며 병원에서 48시간 이내에 퇴원한 경우로 대부분 진단합니다. 둘째로 중증(severe)의 경우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중등도(moderate)는 경도와 중증의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중증의 경우는 의식은 회복했으나 명백한 장애를 갖게 되는 환자들로 최소한 6시간 이상의 의식 소실이 있었던 환자를 말하며 이 환자군은 전체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10%를 차지하며 적극적인 재활 치료로 많은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등도의 경우는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중증의 환자군의 중간에 해당하는 환자군을 의미하며, 진단 기준은 최초의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가 9에서 12 정도인 환자들이나 외상 후 기억 상실(post-trauma amnesia)이 1시간에서 24시간 사이의 환자들이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외상 환자들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 인간 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가 된 환자들로 주위 환경을 알지 못하며 말을 하거나 수의적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면-각성, 하품, 입맛, 대화, 자극에 대한 회피 반응 및 기타 하부 뇌조직에 의한 반응들은 볼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3. 치료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재활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절대 서두르지 않고 환자의 변화를 잘 관찰하여야 하며 경련 등 합병증 유무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가는 포괄적 평가어야 하며 여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평가뿐 아니라, 인지 기능의 평가, 행동 장애의 평가 및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초실버의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증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
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 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지상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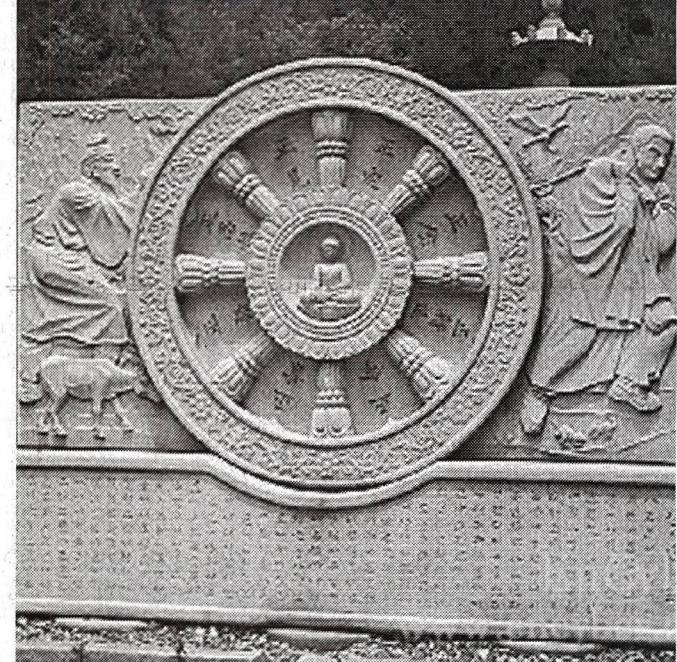
법 등

<밀인사 주교>

기나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그래서 낯선 손님인듯 조금은 익숙하지 못한 수줍은 모습으로 비가 내린다. 절마당의 나뭇잎들과 뒷 벽에서 자라는 생명들이 반짝거리며 춤추고 있다. 이 장마가 그치고 나면 훌쩍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모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물은 계절을 신고

새벽예불을 마치고 이른 아침 작은 뒷밭에 나가보면 이곳에 뿌리내려 살고 있는 뒷밭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요. 밤새 잘 자고 일어난 맑고 건강한 모습들을 보는 순간 오늘 하



△팔정도비.

◇ 최상의 법문 사성제(四聖諦)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의 녹아원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곳 녹아원에서 일찍이 어떤 사람도 또 어느 곳에서도 굴린 적이 없는 최상의 법륜을 처음으로 굴렸었다. 그것은 네 가지 진리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고의 진리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요,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고요, 사랑에는 이별이 있으나 그것이 고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나 고요, 걱정 근심과 번민과 슬픔이 고입니다.”

“사리풋타는 모인 대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이 녹아원에서 일찍이 어떤 사람도 또 어느 곳에서도 굴린 적이 없는 최상의 법륜을 굴리셨으니, 그것은 곧 고, 집, 멀, 도의 네 가지 진리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고의 진리입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요,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고요, 사랑에는 이별이 있으나 그것이 고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나 고요, 걱정 근심과 번민과 슬픔이 고입니다.”

“늙는 것을 고라 함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머리털이 헤어지고 이가 빠지며 얼굴이 쭉그러지고 등이 굽으며 기력이 쇠해집니다. 몸은 날로 무거워 앓으면 허리가 아프고 다닐 때는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니 이것을 늙

루를 열어갈 신선하고 즐거운 에너지가 가슴 가득히 차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기운이 맑아지듯이.

아침 뒷밭에는 언제나 상큼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밤이 새벽별바람에 깨끗이 씻겨진 방울토마토 몇 알을 따서 손에 담아오곤 하는데 그 맛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과 마음가짐으로 평가하는 사회돼야

지난봄에 모종을 내어 자란 것보다 지난해 방울토마토가 익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서 맛은 것이 맛이 더 좋아 꿀맛이지요.

금년 여름은 긴 장마와 팔월의 잦은 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폭염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절전운동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떠나고 휴식을 즐기는 가운데 벌써 처서(處暑)가 되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은 여름을 싣고 흘러가고, 가을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가고 오는 계절은 속일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며칠 전 바위 위에 누워서 바라다보던 푸른 하늘이 유난히 높고도 멀어보이던 것은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지요. 때가 되면 떠나가고,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

이 계절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스스로 속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사회는 유명 인사들의 학력위조 문제를 접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 발생한 학력위조 및 학력확인 문제가 연예계와 종교계

에서는 한 인간의 출생가문이나 출신성분 그리고 학력이나 재력 등 그 사람이 지닌 조건이나 여건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성(心性)과 행위 즉 사람의 마음가짐과 마음 쓰임이 그리고 능력과 업적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 하지요. 한 인간으로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으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학력이 낮아도 좋은 마음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많은 사람들, 높고 가파른 깨달음의 계단을 쉼 없이 오르고 있는 정진수행자들,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겠지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맹귀우목(盲龜遇木)처럼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전생에 좋은 마음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까를 생각하면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 있을 것이니 그 목적을 알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금생에 더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위하는 자비행에 힘쓰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꽃을 모아 꽂다발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살아 있는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그리하여 현세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면 내생에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리라”〈법구경. 불교총전 p. 172-3〉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과 진에심, 어리석은 생각과 미움과 원망심으로 마음이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쉬게 하는 마음의 휴식이 진정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지니고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되면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따르듯이 언제나 만족과 행복이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삶 속에 평화를 가득히 … 음산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

며칠 전 어떤 여성이 날씨가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려다 창문 너머로 보게 된 집근처 건축공사장에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아래 모자도 없이 무거운 벽돌들 지고 가는 여성노동자를 보고는 에어컨을 켜려던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사회에서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 팔정도(八正道)

다음 어떤 것이 집의 진리입니까. 그와 같은 고의 원인은 집착에 있습니다. 이 다음 생의 업보를 부르게 되는 애욕과 번뇌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멸의 진리입니까. 저 애욕과 번뇌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도의 진리입니까. 멸에 이르는 방법 즉 여덟 가지의 바른 길입니다.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선정입니다.

바른 견해란 네 가지 진리를 바로 보는 지혜요, 바른 생각이란 번뇌 망상을 멀리하고 성념과 원한이 없는 생각이요, 바른 말이란 거짓말, 악담, 이간질, 부질없는 잡담을 떠난 도리에 맞는 참된 말이요, 바른 행위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고 올바른 계행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른 생활이란 출가자의 생활 방법으로 부정한 장사나 절술 따위의 수단을 떠나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을 얻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생각을 일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나쁜 생각은 없애버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착한 생각을 일게 하고 이미 일어난 착한 생각은 원만히 키워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억이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몸과 마음과 진리를 바로 관찰하고 탐욕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선정이란 모든 욕심과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혀 선정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진리입니다.

〈중야함 분별성제경〉

진리의 여울

또 원수를 만나는 고라 함은, 일찍이 서로 미워하며 원한을 품고 해치거나 죽이려 했던 자와 만나게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사랑에 이별이 있는 고라 함은,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부모와 처자라도 언젠가는 서로 이별하게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고라 함은, 모든 중생은 나지 않으려고 해도 애로에 따라 나게 되며, 나거든 늙거나 병들어 죽지 말든지 죽거든 나지 말든지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원하고 온갖 재난과 슬픔이 없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것이 또한 고통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일단 생명을 받아 태어난 것은 결국 모든 고통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의 진리입니다.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방치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 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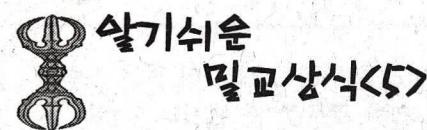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기부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0705



티벳의 불교사는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7세기 중엽 송첸감포왕(629~650재위) 시기에 티벳에 불교가 들어오고서 9세기 중엽 까지를 전기로 보고 그 뒤를 이어 란다르마 왕(836~842재위)의 불교 파괴와 그 것에 이은 혼란기를 분기점으로 978년 이후를 후기로 본다. 불교가 처음으로 티벳에 들어온 것은 대략 5세기 전후였지만 티벳은 아직 불교를 수용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티벳불교사에는 처음에 두 사람의 인도 승려가 밀교의 네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한다. 그것은 《백래참회경》(百拜懺悔經)이라는 밀교 경전과 사리보탑, 밀교의 수행법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유태진언인 “율마니반메홀”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티벳 문자도 없었고 티벳왕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7세기에 들어와서 송첸감포왕이 티벳을 통일했다. 이 시기에 송첸감포왕은 당나라 문성공주(文成公主)와 혼인하였고 또한 네팔의 티询공주와도 혼인을



파드마 삼비바(연화생)

지 확산되지는 못했다.

송첸감포왕이 불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그 뒤에 재위한 두 왕들이 내란과 외란으로 죽었기 때문에 불교발전은 답보상태에 있었다. 티데독첸왕(704~755재위) 때에 이르러 다시 당의 금성공주(金成公主)를 맞이하여 절을 짓고 경전을 번역하는 등 불사를

생(生)을 추천했다. 원래는 나란다사의 밀교승인 봇다구히야(覺密; 각밀)를 초빙하려 했으나 각밀은 자기가 가는 대신에 대일경과 금강경의 주석서를 전해주었다. 연화생은 티벳에 들어오자 밀교의 비법을 써 본교의 무당들을 제압했다. 그는 본교의 신들이 황복하고 불교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송첸감포와 티송데첸왕이 티벳 불교의 길을 열다

불교와 본교의 대립을 거쳐

파드마삼바바의 역할로 밀교가 도입된다

하였는데 이 두 공주는 시집을 때 모두 자기 나라의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을 계기로 티벳에서는 불교가 본격적으로 꽂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통일국가에서는 새로운 이념을 필요로 하는 바 기준의 티벳 고유 신앙이었던 본교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적합하지 못했다. 그런데 차 불교가 들어온으로써 왕실에서는 이를 크게 환영했던 것이다. 문성공주와 티询공주는 후에 각기 조간사와 라모체사를 세웠으며 송첸감포왕 또한 라사에 12개의 작은 절을 세웠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또한 불경의 번역을 위하여 인도문자를 참고한 티벳문자도 만들고 인도, 중국, 네팔 등지의 고승들을 초빙하여 많은 경전을 번역하게 했다. 특히 밀교 경전과 불상이 많이 들어왔으며 왕실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불교는 (밀교를 포함하여) 아직 왕실 위주의 신앙이었으며 대중들에게까

일으켰으나 본교의 권신들이 승려들을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아들 티송데첸왕(755~797재위)이 어려서 즉위했으나 본교의 세력을 늘려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본교에 의한 대규모의 훼불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티송데첸이 성년이 되자 본교의 세력을 몰아내고 모든 신하들은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법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인도 나란다사의 학승 찬드라굽타(顛蘡; 鉢舎)를 네팔로부터 초빙하여 불교를 강의하게 하였는데 찬드라굽타는 중관파의 청변(淸辨)논사의 5대 제자이다. 그는 티벳에 와서 십선법, 십팔계, 십이인연 등의 불교의 기본지식을 가르쳤는데 이 소식을 들은 본교의 무리들이 자연재해를 핑계로 강렬하게 불교를 반대했다. 찬드라굽타는 할 수 없이 네팔로 돌아가면서 티벳왕에게 인도의 저명한 밀교승이자 자기의 매부인 파드마삼바바(蓮花生; 연화

선포했다. 이로 인해서 본교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티벳에 밀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를 뒀던 것이다. 연화생은 후세에 확립된 닝마파의 종조이며 아직도 구루리포체로 불리면서 종파를 초월하여 존중되고 있다. 이후에 티송데첸왕은 다시 찬드라굽타를 초빙하여 연화생과 함께 불교를 확산시키도록 했다. 또한 티송데첸왕은 티벳의 첫 번째 정규사원인 상야사를 건립하고 인도에서 설일체유부 계통의 비구 12명을 초청하여 티벳인에게 구족계를 내리게 함으로써 최초의 티벳승려가 탄생했다. 티송데첸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교와 밀교의 경전을 번역하게 했으며 특히 밀교의 전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티벳불교, 특히 밀교가 확립되는 데에는 송첸감포와 티송데첸 두 왕의 역할이 커다.

〈회령/철학박사·중앙교육원장〉

불교설화 <14>

탐욕의 업보

옛날 강원도 발연사(鉢淵寺)에 여러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젊은 비구승 계인(戒人)과 지상(知相)은 도반으로 서 정다운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때에 지상은 남쪽에서 온 어떤 스님으로부터 목에 거는 모감주 백팔(百八) 염주 한 벌을 선물로 받아 가졌다. 이 모감주는 굽지도 가지도 않은 중간치로서 새까맣게 생긴 것인데 윤이 나서 반들반들한 것이라 누구든지 보는 사람은 탑을 내어갖고 싶어 하였다. 지상은 그것을 애지중지 아끼고 자나 깨나 목에 걸고 벗어놓지를 아니하였다. 그런데 계인은 탑을 내어갖고 싶어 하였다.

어느 해 봄날 계인은 지상에게 절 뒷산으로 올라가서 소풍이나 하자고 권하여 천길 만길이나 되는 협준한 산봉우리에 앉아서 놀게 되었다. 이때 계인은 지상을 바라보면서

「자네 그 염주 좀 구경하세요.」

하고 말을 건다.

지상은 무심하게

생각하며

「밤낮 보던 염주
인데 왜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보자고
하는가?」

「공연히 보고 싶
어서 그려네.」

「그러면 잠깐만
보고 다시 돌려주게
나.」

하고 목에 걸었던
염주를 벗어 주었
다.

계인은 염주를 받
아 만져보며

「참 곱게 생긴 염
주야! 이것을 나에
게 줄 수 없겠는가?」

「농담 말게, 내가 그것을 생명같이 아끼는 것인데 자네를 주겠나!」

 다른 것을 줄지언정 염주만은 줄 수가 없네.」

「정말 줄 수가 없어?」

하면서 고함을 치더니 계인은 별안간 지상을 발길로 차서 천길 만길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는 혼자 염주를 가지고 절로 내려 왔다. 그러나 혹시 죄가 탄로 날까 두려워서, 바람을 짚어지고 절을 떠나고 말았다.

한편 지상은 절벽에 떠밀리는 순간 〈악!〉 소리를 지르며 떨어졌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중간쯤에서 비워틈에 자라난 큰 측백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생명만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정신을 차려서 살펴보니 위아래가 천야만야 절벽으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죽으나 사나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불렀다. 비몽사몽간에 웬 노장 한분이 나타나더니

「여보, 젊은 대사가 염주 한 벌의 애착 때문에 욕을 보게 되었구려. 탐착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발연사〉에 있던 화주승(化主僧)이었는데 시주 돈을 거두어서 절을 다시 중창(重創)하려다가 내 돈도 아닌 공금임에도 역사(役事)를 벌리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다락 속에 감춰 놓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신벌((神罰))을 받아서 큰 구렁이가 되어 이 낭떠러지 밑에 살고 있소.

내가 대사를 구해 줄테니 절에 들어가거든 내가 하지 못한 불사를 이룩해 주시기 바리오. 그리하면 스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소. 내가 구렁이 몸으로 기어 올라가니 대사는 내 등을 타고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시오. 그리하면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서 내려놓을 터이니 절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것은 꼭 잊지 말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리오.」라고 했다.

지상은 꿈에서 깨어나 이상하게 여기면서 낭떠러지 밑을 내려다 보니까 시커먼 괴물체가 기어올라 오는 것이다. 그 물체가 가까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니 대들보만한 먹구렁이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올라오더니 타리는 듯이 등을 들여대는 것 이었다. 지상은 꿈 가운데서 부탁을 받은 일이 있으므로 징그럽기는 하지만 우선 살 욕심으로 구렁이 등에 올라 탔더니 구렁이가 떨어지지 않게 꼬리로 지상의 몸을 감싸고 슬금슬금 기어 올라간다. 금기야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서 평지에 내려놓았다.

지상은 구렁이에게 절을 하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후 구렁이와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감사한 마음 그지 없소이다. 스님의 소원을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시행하리다.」하고 사지에서 살아났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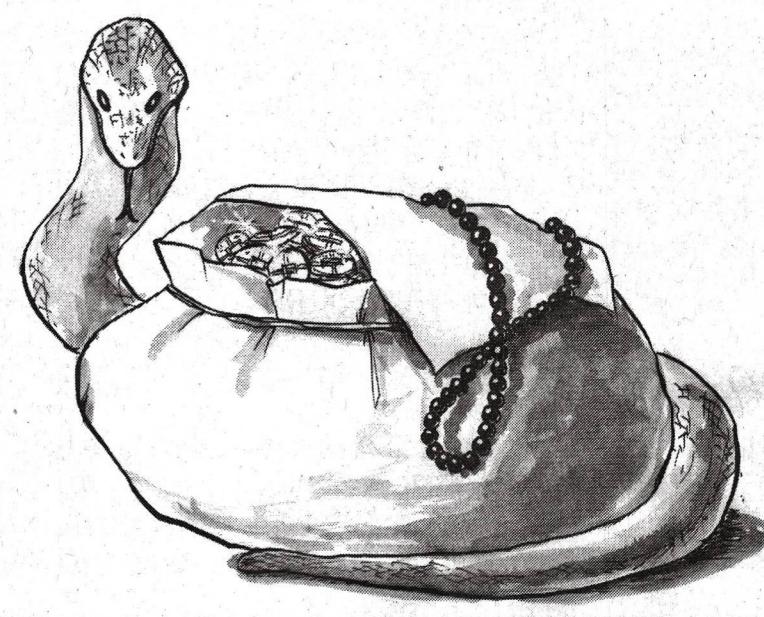
절에 돌아와 공루(公樓)에 올라가서 채득을 열어보니 시 주의 방향록과 함께 엽전 수백닢이 노끈에 퀘어져 구렁이처럼 서리고 있었다. 지상은 대중에게 공포하고 이 돈을 꺼내어 발연사를 중건중수(重建重修)하고 낙성회향제(落成回向齋)를 올리었다. 또 이를 위하여 지장기도(地藏祈福)까지 올려서 천도하였다.

그랬더니 구렁이는 다시 꿈에 본 노장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상에게 치하하고 「나는 덕택으로 구렁이 몸을 벗고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계인대사는 이 소문을 듣고 지상을 찾아와서 염주를 돌려주며 지난 일을 참회하고 사죄하였다. 이 때 지상은 「이 염주 때문에 서로 본의 아닌 죄를 지은 것이오.」라고 말하며 염주를 불에 태워버리고 나서 그들은 좋은 절대로 고귀한 물건을 가질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애착이나 탐욕 할 것이 아님을 서로 다짐하였으니, 이로부터 그들은 신심을 돋발하여 후에 고승이 되었다고 한다.

-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짓는 업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본다. 마음의 탐심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판단능이 되어버리곤 한다. 그러한 슬한 과오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인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 설화가 의미하듯 화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고 가장 가까운 이에게 쉽게 범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된다.

- 심일화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출시



종조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이 나왔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총지종은 이번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 등을 비롯한 오디오 자료들을 활용하여 명상이나 요가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 통리원 전화 02)552-1080~3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총지문예

김영관
동해중학교 3학년 4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이미 헐린 이웃집의 문설주를 쪼개 불을 때워 식사를 하고 있던 난쟁이 일가는 자신들의 집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눈물과 함께 삼켜야 했을 것이다. 식사를 마친 지섭은 철거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을 저희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오백 년이라고 입주권의 값이 뛰어오르고 영수에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 아픈 책이었다. 하지만 난쟁이들의 힘겨운 삶의 투쟁을 보면서도 그들에게서 들틀에서 핀 미나리아재비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무언인가를 느꼈다. 이 책이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짓밟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난쟁이인 아버지, 그리고 소의 계증이다. 실낱같은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꿈꾸지만 집을 철거하겠다는 철거통지서가 날아온다. 며칠 후 철거시한이 지났다며 불쑥 쳐들어온 철거반원들은 쇠망치를 들고 멋대로 담을 부수기 시작했다.

하겠습니다. 천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오백 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 버렸습니다. 오년이 아니라 오백 년입니다.”

그렇다. 그 집은 오백 년에 걸쳐 지어진 집이었다. 영수가 인쇄한 옛 날 노비 문서에서 보듯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은 수 대에 걸친 것이었으며 그 갈등의 대상은 변함이 없었다.

그 집은 난쟁이 일가에게는 수 대에 걸친 펑박을 헤치고 겨우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 였던 것이다. 그 소중한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내뱉는 지섭

의 절규는 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인쇄소 제본 공장에 나가고 영수는 인쇄 공무부 조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 나간다. 영호와 영희도 몇 달 간격으로 학교를 그만둔다. 투기업자들의 농간으로 입주권의 값이 뛰어오르고 영수에게

이요 희망이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난쟁이의 대사와 같이 사람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재비꽃 줄기에 까지 머물게 하는 그런 달나리를 희망하여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난다.

그때도 행해져 왔고 어쩌면 지금도

일부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을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현실을 알아 간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놀라 버리고 작은 난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다.

그러나 난쟁이들에게는 늘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난쟁이를 난쟁이에게 하며 난쟁이가 있기 위해 거인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들이다. 사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감히 내 자신에게 던질 용기가 없다.

하지만 내 자신이 난쟁이란 사실이 자랑스럽다. 아직 거인들에게 없는 ‘사랑’과 ‘희망’이 내 안에도 숨쉬고 있을 테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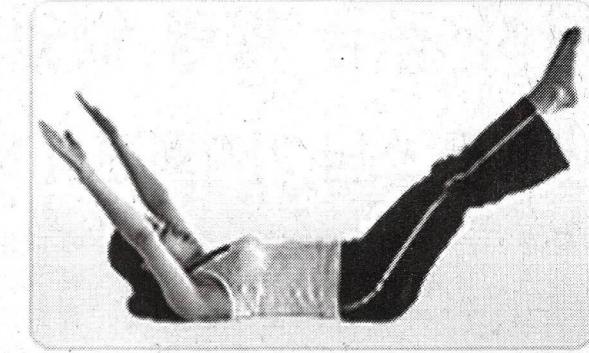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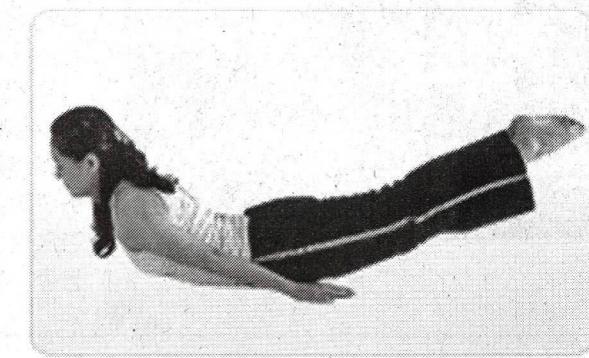
거대한 모든 것도 무섭지 않다. 사람이 있다면 나를 소외시키고 난쟁이들을 소외시키는 사회의 모든 것까지 사랑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희망과 사랑을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이달의 생활요가

셀프요가의 원리

▶ 힘주어 버티는 원리

- 뼈를 튼튼하게 한다.
- 집을 지울 때 땅을 밟아 터를 다지듯 몸을 탄탄하게 다져준다.
- 몸속에 열기를 형성시켜 몸을 따뜻하게 한다.
-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건강한 체질로, 삶이 잘찌는 사람을 삶이 잘 안찌는 체질로 개선시키는 제일 중요한 원리이다.



버티는 원리는 요가 자세를 취하고 일정시간 유지하는 말이다. 자세를 유지하면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힘이 들어가게 되며 그 힘은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몸 속 깊숙이 자극하게 되며 막힌 곳을 풀어주고 에너지(힘)를 저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는 크게 보면 뼈와 살로 되어 있다. 사람은 음식과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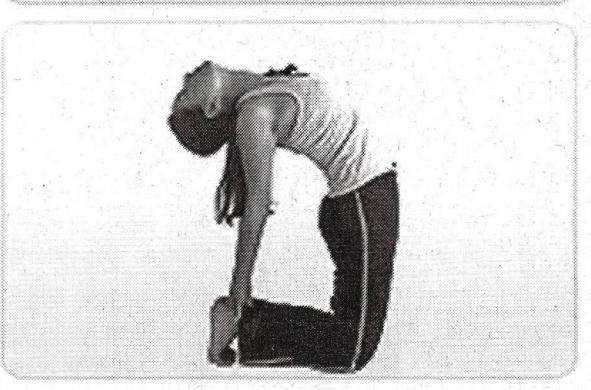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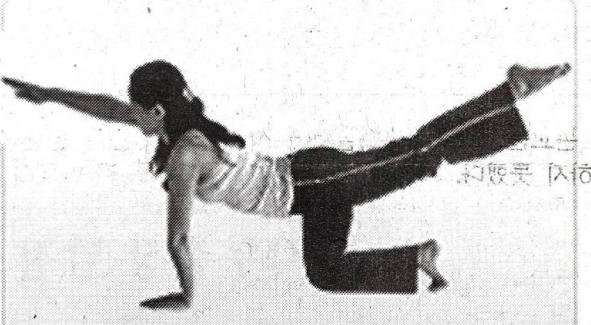
그런데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힘이 뼈로 가는 에너지가 강하나 살로 가는 에너지가 강하나에 따라 체형이 결정된다.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잘 찌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살이 찌지 않는다. 이것은 내장의 흡수력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흡수된 영양에너지도 결국은 몸 안에서 강한 것이 차지하게 된다.

이것은 살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살에 에너지가 형성되어 살이 잘 찌게 되고 뼈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뼈를 이루는 에너지로 형성되어 뼈의 골밀도와 에너지 밀도를 강하게 한다.

뼈가 강한 사람 치고 몸이 약한 사람으로 뼈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쉽게 비만해지지 않는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우유속의 풍부한 칼슘에 의해 뼈의 에너지를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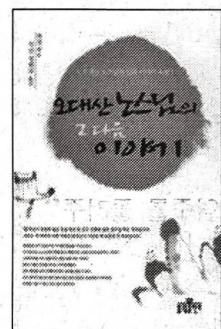
칼슘이 부족하면 비만이 되기 쉽다는 것도 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달의 추천도서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

과경 역음·각산 정원규 옮김/
불광출판



아무도 신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통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사람 중에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구비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른 사람은 조만간 악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를 개인의 행동과 생각 모두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불보살과 귀신은 어떻겠습니까?

주역철해(周易禪解)

지숙 선사 저·이둔 박태섭 역주/
불광출판



교가 확산되면서 겪게 되는 중국 전통윤리와의 갈등과 융화의 양상, 역경 삼장을 중심으로 한 불경의 번역, 중국 불교의 특색이기도 한 종파불교의 주장과 전개, 민중과 함께하는 중국불교의 다양한 모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2편 중국의 불교신앙에서는 관음신앙, 법화경신앙, 문수신앙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앙모습을 살펴보고, 특히 응보신앙이 중국인의 삶과 사상에 어떻게 투영되고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중국 전통종교인 도교와는 어떻게 대립하고 융화했는지 등을 보여준다. 끝으로 제3편 중국불교사의 주요인물에서는 안세고부터 근대의 태허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전파나 역경, 수행, 저술 등 중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40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중국의 불교문화

차차석 편저 /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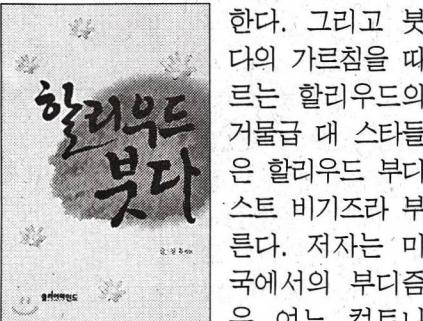
중국인의 불교문화와 불교신앙에 대한 이해의 길잡이. 제1편 불교문화에서는 불교의 전래와 관련된 여러 설들과 초기 중국불교의 모습, 그리고 불

교에 문드러지면 반드시 회복되며, 낮(찬란한 시절)이 있으면 다음에 반드시 배어 죽임이 있다. 무슨 말인가? 화를 당한 다음에는 복이 차례를 바꿔 타고, 복을 받은 다음에는 화가 차례를 바꿔 탄다. 역(易)을 공부하는 자라면 응당 상(相)을 보고 말씀을 음미하며, 변화를 보고 점(占)을 가지고 돌아야 한다.

한국의 불교문화

한국의 불교문화

할리우드와 뉴욕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중음악과 영상물을 통한 불교적 색채의 새로운 트렌드를 부다테인먼트라



한다. 그리고 봉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할리우드의 거물급 대 스타들은 할리우드 부디스트 비기조라 부른다. 저자는 미국에서의 부디즘은 여느 컬트나

공신집단의 이벤트처럼 요란하게 스치고 미는 일과 성현상이 아니라, 지속성과 확산성을 확인받은 가치관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리처드 기어, 사론 스톤 등 할리우드에서 봉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마워요 자비명상

미가스님 이주영 저/ 불광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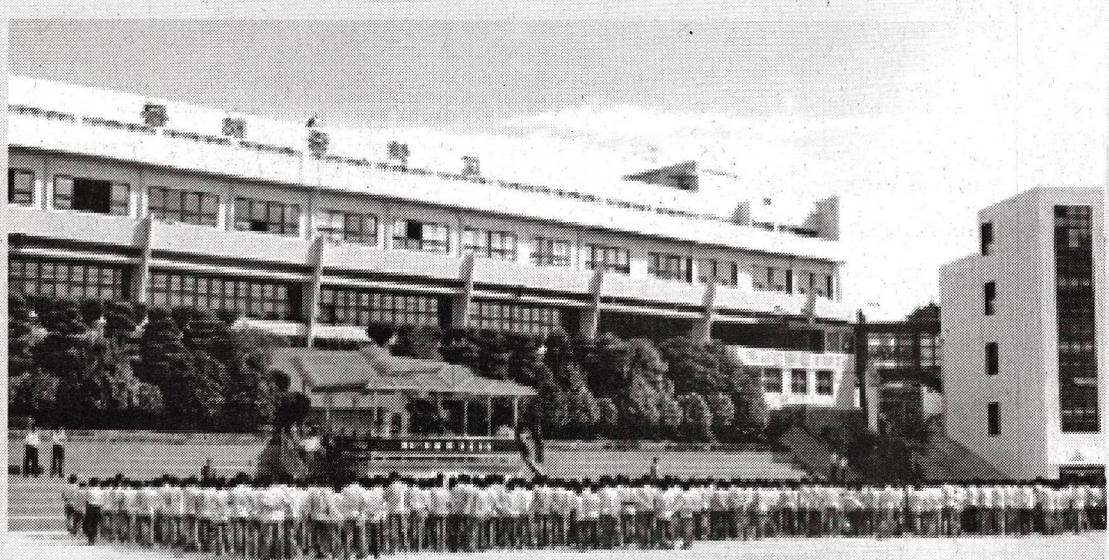
자비명상의 지침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고마워요, 자비명상』. 문명이 빌랄할수록 우리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인 마음의 ‘자비심’을 키우기 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자체하게 소개한다.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가족간의 화합을 위한 지침과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한국의 불교문화

한국의 불교문화

할리우드와 뉴욕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중음악과 영상물을 통한 불교적 색

개교 4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개교기념일 행사안내

- 일시 : 9월 21일 오후 2시
- 장소 : 동해중 운동장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동국대 에너지·환경 특성화 센터 건립

국고 등 40여억원 투입



◇동국대 특성화센터 도감도.

동국대가 시대 요구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매진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자연 과학관 주차장 일대에 특성화 센터를 건립한다. 특성화 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구조 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동국 대가 국고지원금 29억 원 등 총 40여 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시설이다.

특성화 센터는 에너지와 환경을 특화시킨다는 학교의 목표에 따라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이 마련되고, 특성화 사업단 연구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상 4층에 건물연면적 3400㎡(1000여 평) 규모로 건립되는 특성화 센터는 일반연구실과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실험실 등으로 채워지게 된다.

손동진 부총장은 “환경공학(ET) 분야를 특화 사업으로 육성할 경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특성화 센터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백담사 공금 횡령 없었다”

주지 일문 스님 기자회견서 해명

백담사 공금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제 백담사 주지 일문 스님이 처음으로 입장을 열었다. 일문 스님은 8월 28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거액의 횡령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담사에서 본인이 주지를 맡은 이후 7년 동안 국고보조와 지자체 지원금은 5 억여 원 정도 된다”며 “그러나 그것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일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류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는 “입기 1년여 앞두고 후임자에게 재정문제를 투명하게 인수인계하기 위해 8월초 거래은행에 ‘금융거래내역표’를 발급받았다.

또 “상당액의 현금이 어느 시점(2006년 9월 18일)에 통장에서 출금된 것을 보고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러나 이 돈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됐을 뿐이며, 그 돈은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일문 스님은 “이번 투서는 본인이 분실한 서류를 습득한 누군가에 의해 각 언론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에 대해 현재 인제경찰서 정보과

서류분실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에 동봉된 거래내역은 예금개설 명의자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이 고의로 자료를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하는 의혹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덕과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9월3일 열린 조계종 전법회관 기공식에서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참석대중들이 사십을 하고 있다.

불교 전법 구현의 구심점이 될 조계종 전법회관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조계종 전법회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현문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는 9월 3일 전 불교신문 사옥에서 전법회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강당과 2곳의 중규모 교육장, 6개 층의 업무시설, 1개 층의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8~9층

회, 사회복지재단이 첫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이래,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전법회관은 대지면적 560.10㎡(169평)에 지상9층 지하2층, 전체 연면적 3451.36㎡(1044평) 규모로 세워진다.

대강당과 2곳의 중규모 교육장, 6개 층의 업무시설, 1개 층의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8~9층은 스님들의 요사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회관에는 불교신문사와 중앙신도회, 조계종 복지재단을 비롯해 총 12개 포교, 신행단체가 입주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조계사 시민선방이 수행을 의미한다면 전법회관은 포교하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이로써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수행과 포교를 전념으로 이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완공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튼튼하고 편리하고 이를답게 조성되기를, 를 염원하며 부처님의 말씀이 곳곳에 퍼지는 원력이 실천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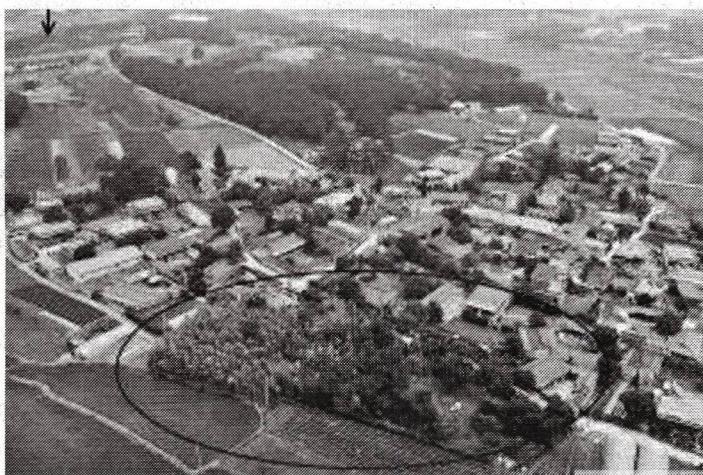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은 “전법회관은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토록 전승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통해 불자들이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고 불교의 미래 백년대계를 든든하게 외호하는 신장이 되기를 다함께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법회관은 이날 참석 대중들의 테이프 절단과 사십과 함께 본격 건립공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008년 6월 완공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교육원장 청화스님, 총무부장 현문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국장스님, 불교신문사장 향적스님,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구자선 중앙신도회 고문 등 임직원, 문원호 신명 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제석사지 본격 발굴 착수

2009년까지 발굴 계속



◇익산 제석사지 전경.

백제 30대 왕인 무왕(600~641년)이 수도를 금마로 옮기기 위해 세운 왕실 절로 추정되는 제석사지는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의하면 정관 13년(639)에 세워져, 같은 해 뇌우로 인해 불당과 낭방(廊房) 등이 모두 불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는 1993년 제석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해, ‘제석사(帝釋寺) 명(銘)’ 명문와 백제당초문 암막새를 비롯한 7세기 당시의 기와를 다양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03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불에 탄 소조불상과 연화문 수막새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한일불교문화협, 흥법사 관련 소위원회 구성한다

사무총장 남정스님 등 6명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이사장 흥파)는 8월 2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정부 흥법사 문제와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사무총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지원(조계종 사회부장)·양산(조계종 전 사회부장)·법종(보문종 총무원장)·송종(미륵종 총무원장) 스님과 진각종 총무부장 수성 정

사 등 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흥법사를 관음종 사찰로 등기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남정 스님은 “흥법사는 관음종에 등기가 돼 있어 문제가 없으며, 취득 과정이 한일불교교류와 관계가 있으므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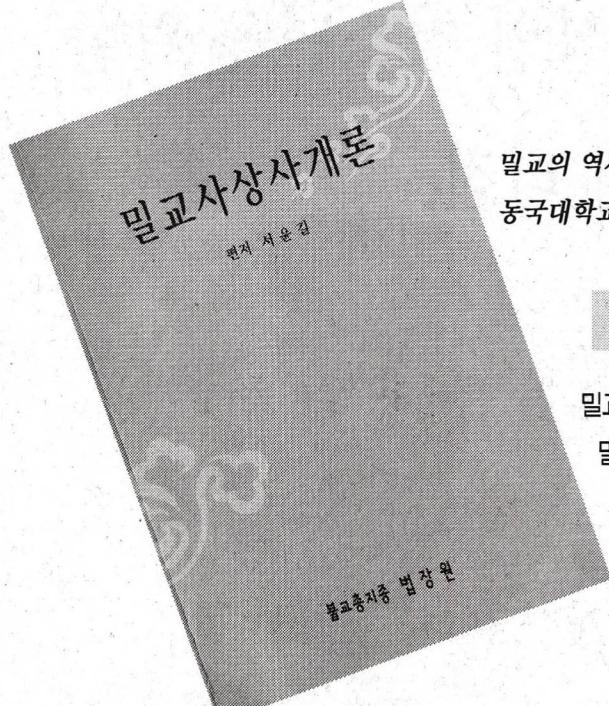
현재 흥법사 문제는 흥법사 주지 지섭 스님이 관음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백제시대의 왕실 사찰로 추정되는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 405호)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다.

왕궁면 제석사지에서 개토제

를 개최했다. 발굴은 오는 2009년까지 계속되며 사역 중심부인 목탑지와 금당지, 강당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 대승장엄 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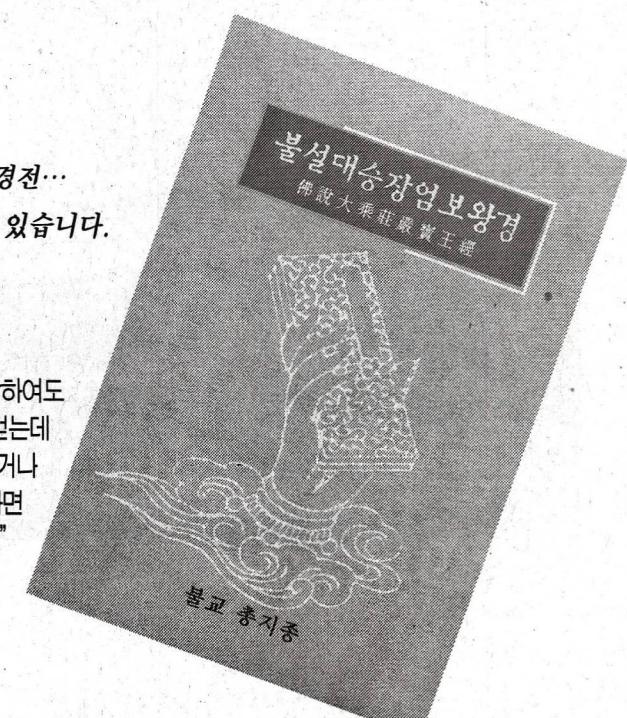
육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배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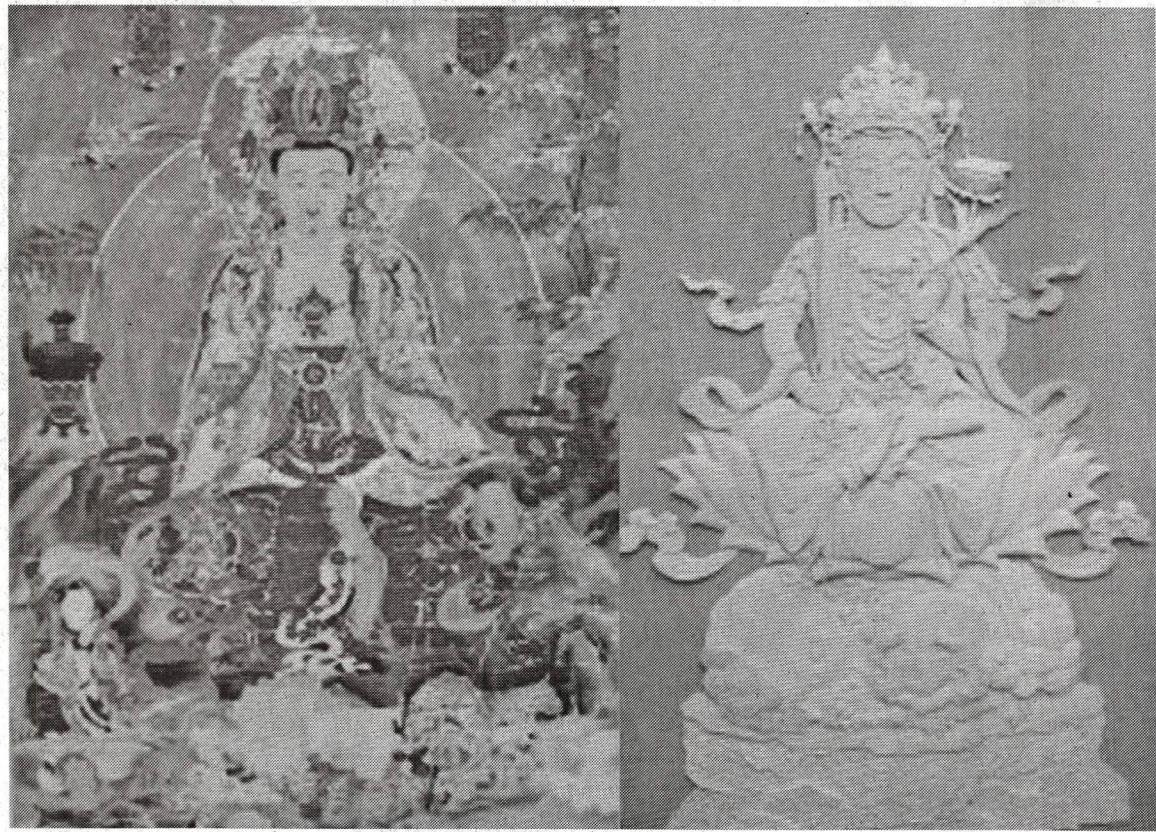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관음탱' '문수보살' 선정

총무원, 대상 수상작 없이 최우수 공동 수상 결정



◇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작, 관음탱과 문수보살 종이조각.

불교천자문 및 정토 회보 150회 발행 기념식

'불교천자문-4개 국어로 정리'



◇ 불교천자문 출판 기념법회.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불교천자문 출판 및 정토 회보 150회 발행 기념식'을 8월 29일 오후 7시 정토사 설법전에서 개최했다.

덕진 스님은 "불자들의 화합과 대화의 창으로 마련한 정토 회보가 150회를 맞았고 또한 <불교천자문>

은 한국의 불자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신행하여 지혜와 행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불교 천자문은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등 총 4개 국어로 정리됐다.(052)258-9944

부산 금정문화회관 2전시실 9월 8일부터 14일까지



◇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표현한 출품작.

'정중동(靜中動)'을 화폭에 담아 '연화세상(蓮花世上)'을 펼친다.

불(佛)을 마음에 담듯 그림에 담아 30년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화(佛畫)에 매진한 부산 금강암 성타 스님의 개인전이 열린다.

부산 금정문화회관 2전시실에서 열리는 '연꽃 그림전'은 9월 8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14일까지 30여점의 그림들을 선보인다.

성타 스님은 이번 개인전을 맞아 "불교에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과

깨끗하고 맑은 호수가 가운데 흐르는 임어의 움직임을 통해 '고요함 속의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맑아지고 연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명한 원색을 담았으나 한지를 사용하며 전통의 맛을 살린 성타 스님만의 독특한 화폭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성타 스님은 1998년에서 지금 현재 까지 총 10회의 개인전 및 단체전, 초

경주시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학자 신라역사문화 조명

신라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경주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보문관광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이틀간 신라학 국제학술회의 개최한다.

'세계 속의 신라, 신라 속의 세계'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 외국 학자 7명과 국내 학자 20명이 참가한다. 학술회의에서는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전 일본 도쿄대 교수가 '신라사의 전반적인 연구'에 대해, 황신주(黃心柱)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신라불교와 중국'에 대해 발표한다.

또 도널드 멘델레인 미국 UCLA 대교수는 '신라와 동해'를 통해 초기 신라불교와 일본불상과의 관계를 조명하며, 팬크스 모헨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신라 황룡사의 국제적인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에서는 문경현 전 경북대 교수가 '세계인 최치원'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며, 김리나 전 흥익대 교수는 '신라불교미술의 국제성'에 대해, 신형식 전 이화여대 교수는 '신라외교사절의 국제성' 등에 대해 발표하는 등 20여명의 국내 학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생활상식

◀ 부드러운 오믈렛 만들기

플레인 오믈렛을 만들 때, 계란 1개에 마요네즈 1 작은술을 넣으면 폭신하고 부드러운 오믈렛이 완성된다. 눈기 쉬우므로 약한 불에 조리하고, 소금은 조금만 넣는다.

◀ 샐러드드레싱을 무치기

채소 샐러드를 만들 때는 무침처럼 볼에 채소와 드레싱을 넣고 무치는 것이 좋다. 끼얹지 않고 무치게 되면 드레싱을 끼얹을 때보다 적은 양(약 절반 정도)으로도 맛이 충분히 배어들고 칼로리도 낮출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 간편하게 된장 풀기

된장을 거풀기로 풀면 철사 사이에 된장이 끼어 오하려 번거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 않다. 거풀기를 천천히 돌리면 된장이 국물에 녹아들 듯이 잘 풀린다.

◀ 튀김 기름 정화하기

튀김에 여러 번 사용했던 기름에서는 거품이 있는데, 이 것은 수명이 다 했다는 증거이다. 이 때는 매실 장아찌 1개를 넣어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고온에서 튀긴다. 끈적한 기름이 놀랄 만큼 깨끗해진다.

◀ 햄버거 포장지 재활용

햄버거를 먹은 다음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두자. 보온성과 내수성이 있어서 쿠키를 구울 때 깔개로 이용할 수 있다. 잠시 놓아두면 여분의 기름기를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 적은 양의 레몬 즙 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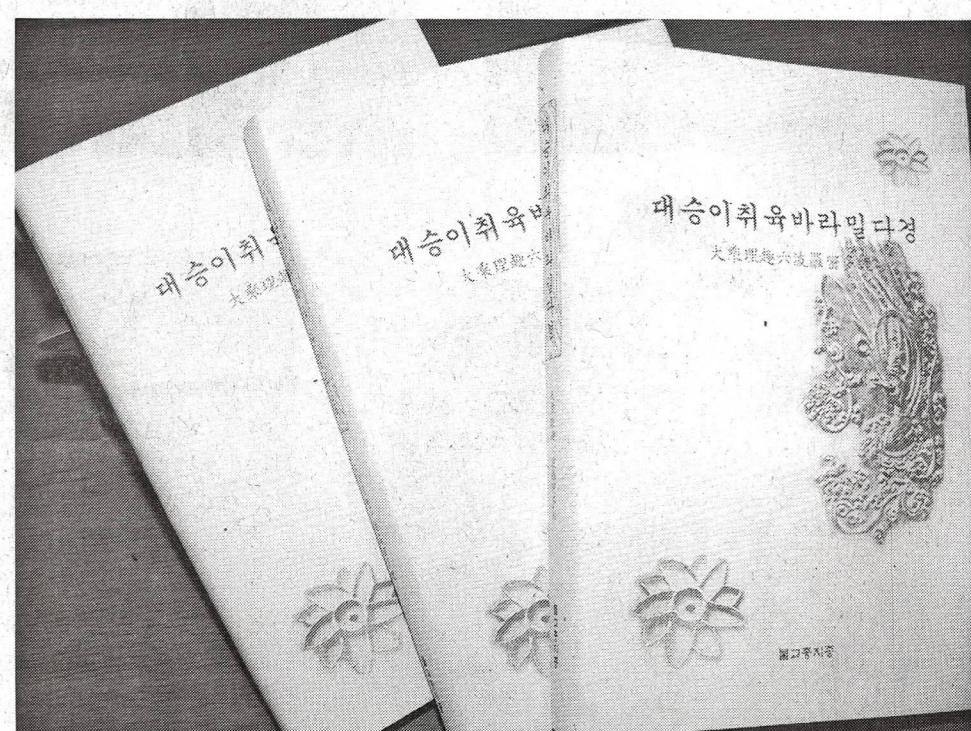
적은 양의 레몬 즙이 필요하면 병 뚜껑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먼저 금속제 뚜껑에 송곳으로 8 군데 정도 구멍을 뚫는다. 그런 다음 끝부분을 잘라낸 레몬에 뚜껑을 비틀어 꽂고 레몬을 누르면 필요한 만큼의 즙을 짤 수 있다.

▶라면 먹을땐 채소, 계란 꼭 곁들 이세요

라면은 중량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이나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다른 식품에 부족하다. 라면에 계란을 넣고 양념을 듬뿍 치면 문제 해소!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설한 경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반야사상에 기초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여섯가지 바라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하여 궁극적인 지혜를 얻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총지종의 소의경전입니다

불교총지종

총지 FOCUS

/제7회 경로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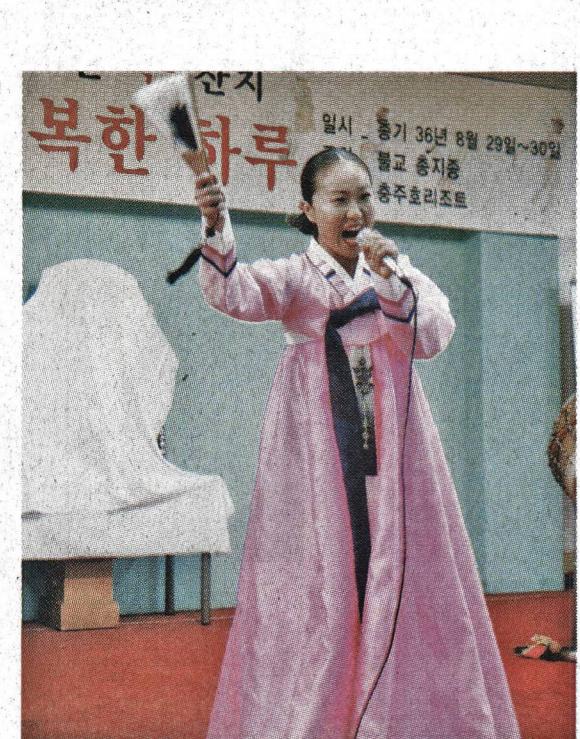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충주호 리조트에선 제7회 경로법회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법회엔 전국의 여려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한 데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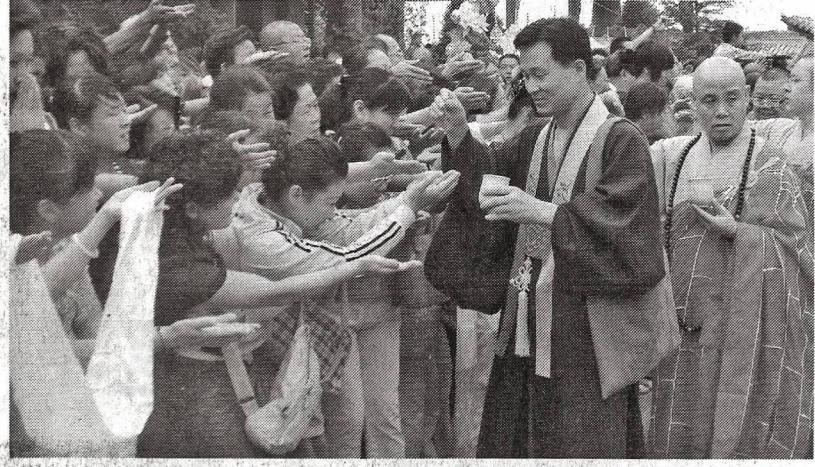
교도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사원간 화합을 도모하며, 경로사상도 고취한 아주 편안하고 흥겨운 한 때였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의 모습과 즐거웠던 장면을 지면에 담아 봤습니다.

-편집자 주



중국 스님들의 청정 계행과 위대한 원력 본받아야 난주 보은사를 다녀와서



가지공덕수를 받으려는 중국 불자들.

중국불교협회 국제부 주임인 보정(普正)스님과의 인연으로 난주 보은사(報恩寺)를 방문하게 되었다. 난주는 중국 감숙성의 성도로서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변방지역의 하나로서 중국 전체로 보면 비교적 낙후된 곳이다. 보은사는 중국 감숙성 출신인 보정 스님이 원력을 세워 이룩한 절로서 이번에 사천왕전과 종고루의 낙성식을 겸하여 국내외의 지인들을 초청했던 것이다. 중국 유명 사찰의 방장들과 정관계 지도자들도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만여 명의 신도들이 몰렸으며 자원봉사자만도 300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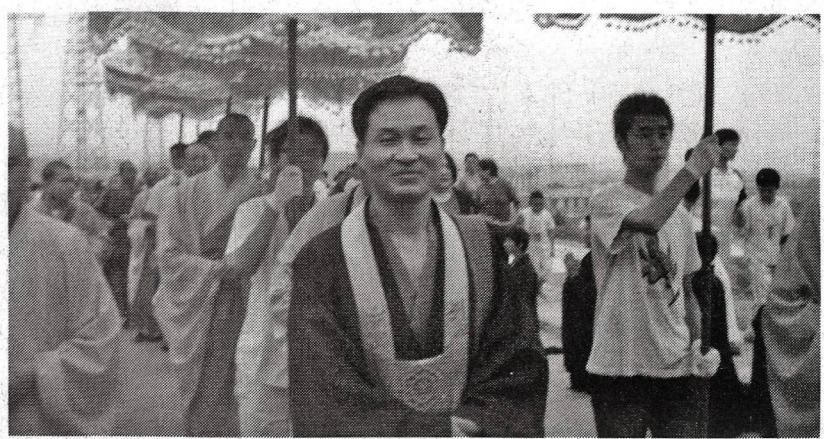
특히 신도들의 열정적인 봉사와 신심은 불교의 세력이 미약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많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보정스님은 중국불교협회 국제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원광대에 유학 와서 천태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우리 돈으로 비교하면 150억 원 규모의 대불사를 일으켜 고향 난주에 엄청난 규모의 사찰을 건립했던 것이다. 그것도 불과 5-6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불사이나 부지련합과 원력에 머리가 수그려질 때였다.

중국 스님들은 출가정신이 투철하여 계행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오직 불사를 일으키는 원력으

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도들의 스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다. 경제수준이 우리와는 아직 많은 차이가 나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불사를 위한 보시금도 많게는 우리 돈 규모로 수천만원 씩 하는 것이 예사이다. 많은 불자들은 불사에 동참하는 것을 사는 데 있어서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항공료만 해도 어지간한 사람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수천 리 떨어진 감숙성까지 와서 낙성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군선 신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보은사 뿐만 아니라 중국 각처에서는 젊은 스님들이 대규모의 불사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스님들이



고승대덕들과 함께 법회장에 입장하는 화령 정사

세상사는 이야기

며칠 전 더운 날씨 햇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인터넷 동아리 방에 들어가 보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회원이 올린 연꽃이 너무 아름답고 '관곡지'의 모습은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로 돌아간 듯,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이 곳에 올린 글에, 우리나라에서 연꽃을 처음 재배한 곳이라 하여 더욱 관심이 깊어졌다.

곧 전화 통화로 "그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도 볼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는 흔쾌히 우리의 부탁을 받아 주었다. 나이는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 마음 씁쓸이는 그 누구보다 크고 넓다. 날짜 약속을 하고 그의 차로 우리들을 안내하기로 했다. 약속한 날을 기다리는 동안 설레는 마음 누를 길이 없었다. 군에 간 사랑하는 아들 첫 번째 휴가 날을 기다리듯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애꿎한 친구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여행을 떠나듯이 떠났다. 장소는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관곡지'이다.

가는 동안 비는 계속 오다 말다

연꽃생각

운 우리 한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고즈넉하고 조용한 한옥 들에 아담한 연못인 '관곡지'가 있다. 이 곳은 안동 권씨 문종의 사유지라 한다. 빗속의 '관곡지'는 더욱 애잔한 아름다움이 있다. 연못 가운데에는 소나무가 있는 작은 섬도 있다. 우리나라 선비의 기상이 보이는 듯하다.

이 곳은 조선 전기의 명신이며 농학자로 널리 알려진 '강희맹'(1424-1483) 선생이 세조 9년 '진현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 올 때 남경에 있는 '전당지'에서 연꽃씨를 가져

왔다.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뚫린 듯, 물을 쏟아붓고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과연 연꽃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한가지 위안은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꺾인 것이다. 도착해 보니 웃는 날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사진작가들이 많았다.

먼저 '관곡지'를 보기로 했다. 지금은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

웠다. 연꽃 모두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찬 비바람에 연꽃들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물기를 잔뜩 머금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연꽃은 그 나름대로 새색시 같아 이를 탑다. 연 위의 물방울을 마치 크리스탈 같이 빛나고 있다. 연잎을 손으로 빙빙 돌려 보니 물방울이 여려 개로 갈라져 작은 보석들처럼 반짝이다가 또르르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로 뭉쳐 지기도 한다.

이 곳은 종류가 다양해서 처음 보는 신기한 연꽃도 많았다. 노란색 연꽃도 처음 보았다. 그늘 막 밑에 잠시 앉아 지친 다리를 쉬어 본다. 이 많은 종류의 연꽃 중에 '심청이'는 어떤 연꽃을 태고 용궁에서 나왔을까? 연꽃에 사뿐이 앉아 있는 '심청이'를 그려 본다.

이 곳에 앉아 있으려니 비가 와도 좋고 햇볕이 비쳐도 좋다. 연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다. 행복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 한 무엇이 더 있을 것 같다. 모든 잡념이 놓아 버리고 몇 날, 몇 일, 하염 없이 앉아 있고 싶다. 그대로 연꽃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

박묘정

수능을 앞둔 아들에게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지난 지도 여려 날인데 8월의 늦더위가 꽤나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구나.

무엇이라도 녹여 버릴 기세로 달구어져 이글거리는 하늘을 보면 어쩐지 지독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서원당에서 바라보는 하늘 한 자락엔 가을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단다.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시간은 또 저민치로 달아나고 있었구나.'

시간의 빠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는 건 불과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때문이란 걸 너와 같은 수험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리라 싶다.

사실, 우리 아들이 그 힘들다는 '대한민국 고3'이 되리라는 사실을 막연하게 짐작만 했었지 이렇게 빨리도 다가올 줄 어떻게 알았겠나?

우리가 수능 100일 불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 사이, 또 며칠이 지나고 보니 한시도 계

을리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잠

많은 엄마가 새벽이라도 정신이 반짝드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고3 엄마'의 무거운 현실을 실감한다.

그나마 다른 수험생에 비해 조금은 덜 예민하고, 느긋해 보이는 네가 고

부처님 덕분에 긍정적인 엄마로... 한계 극복하고 당당한 승리자 되길

마우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너의 속마음은 많이도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

어릴 때부터 나이에 비해 항상 어른스럽고 의젓하던 그 속 깊음의 표현이란 걸 말이다.

아들아,

길다면 길고, 짧다면 너무도 짧은 80여일!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구나.

'자신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너무도 많이 들어 봤을 거야.

정말이지 남은 기간에 너의 한계를 극복하는 당당한 '승리자' 이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안달하고 잘 물어대는 엄마에게

"지금은 물지만 마지막에 엄마를 웃게 하면 될 거 아니요!"

당당히 큰 소리 치던 우리 아들을 사랑한단다.

함영록(부산 정각사)

기사제보 총지증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자비신행회, 건강 걷기대회 안내

자비신행회에서는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라는 주제로 건강 걷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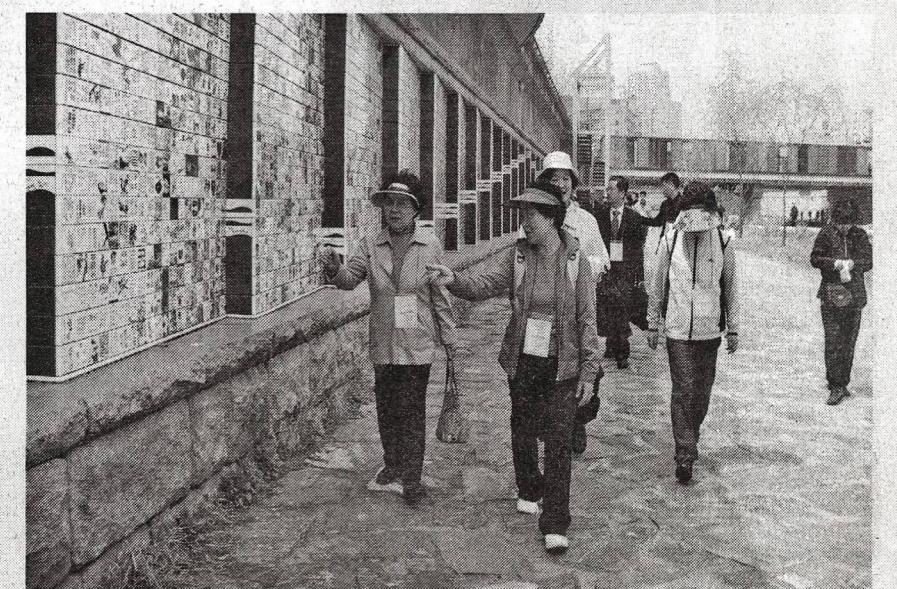


1부 행사: 양수리 건강 걷기

2부 행사: 가을 풍경 담기(카메라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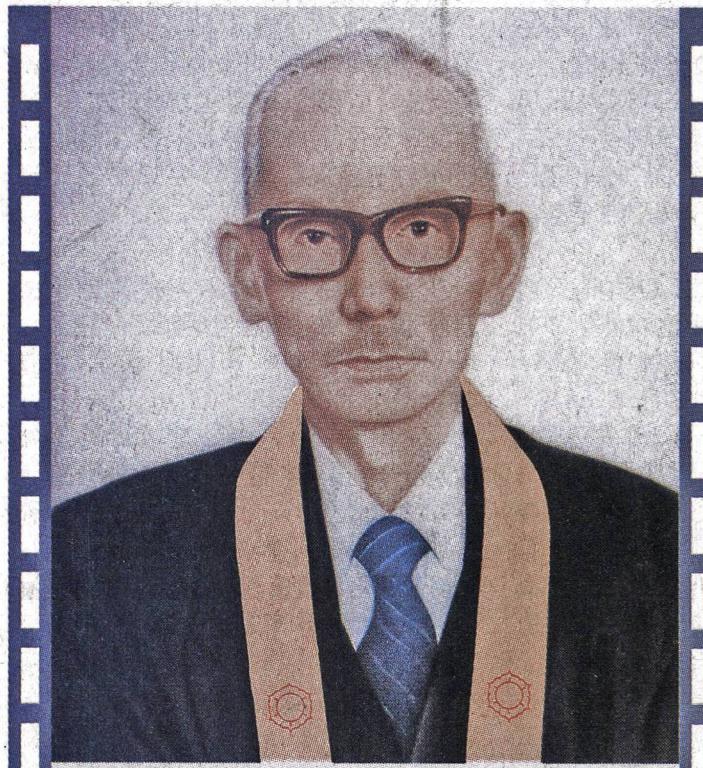
- 참가대상 : 위드다르마 가족, 교도, 일반인 누구나
- 일 시 : 2007. 9. 14 (금)
- 장 소 : 경기도 양수리

- * 당일 오전 10시까지 전철 1호선 회기역 앞에 집결, 기차를 타고 갑니다.
- * 점심, 간식, 물은 각자 준비하여 지참하세요.
- * 참가비: 1만원 (어린이·학생은 참가비 없음)



원정대성사(苑淨大聖師) 탄신 100주기- 멸도절 특집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꽂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약력과 사진, 유고(遺稿) 등을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원정 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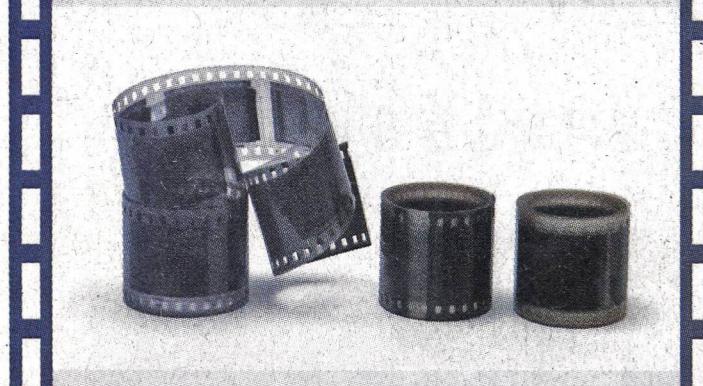
대성사 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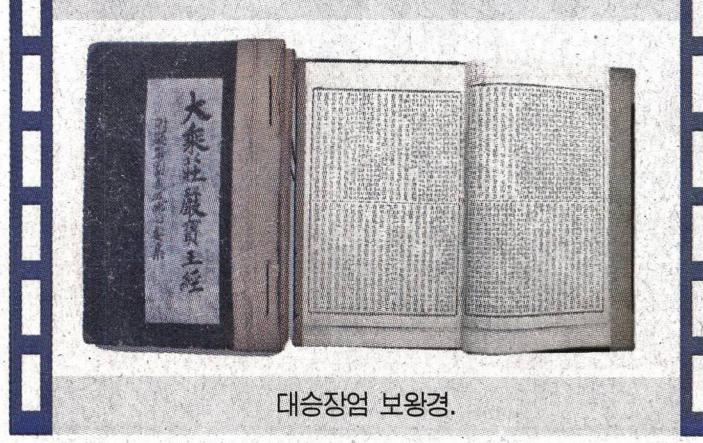
공덕비 앞에서.



대성사 생가터 시랑방.



국립도서관 장서촬영 필름.



대승장엄 보왕경.

◆현대한국밀교의개척자

원정대성사(苑淨大聖師) (1907.1.29~1980.9.8)

총지종 창종조 원정 대성사(苑淨大聖師)의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 휘(諱)는 정우(禎佑)이다.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아버지는 손기현(孫基賢) 씨이고, 어머니는 이근호(李根浩) 씨이다. 대성사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면이 많았으며, 명리에는 뜻이 없고 정의감에 투철하였다 한다. 관계(官界)와 교육계(教育界)에 종사했으며, 불경에 심취, 일본과 중국을 편력하며 불교연구에 몰두하였다. 그후 구국과 중생제도의 뜻을 세우고 호국불교를 통한 교화방법을 주창하였으니 밀교종 창종이 그것이다.

정통밀교 확립에 진력

대성사는 진각종의 개조 회당 손규상 조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당 조사의 입적 후인 1963년부터 진각종 종인의 자격으로 진각종을 이끌며 진각종의 교리적, 행정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이후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던 중 현행수행체계에 오류를 발견하고 <준제관음법>을 발굴, 그 시행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성사는 1972년 1월 1일부터 국가안보와 정법봉득(正法奉得), 입교개종(立教開宗)을 위한 서원으로 100일 정진에 들어 갔다. 같은 해 8월엔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391번지 5호로 이거하여 서울 선교부를 개설하고 비밀의궤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또 동년 12월 개종불사 및 창교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종명을 총지종(總指宗)으로 결정했다. '총지'라는 뜻은 총지, 즉 다라니로써 진언행지와 모든 중생을 지도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개종기원(開宗紀元)이 총기원년(總紀元年)이 되었다. 이후 원정 대성사는 정통밀교의 교상과 사상의 정립을 주창함과 동시에 삼밀의궤(三密儀軌)와 사종수법(四種修法) 및 진호국가법(鎮護國家法)을 선포했다.

대성사는 창종인 그해 1972년 9월 9일 비밀의궤법을 제정하였다. 현밀원통심요집(顯密圓通心要集) 가운데 밀교심요(密教心要)의 사종

수법을 발췌하여 한글로 번역 배포하였다. 것이다. 또 종단 교의(敎義)의 상징이자 종지(宗指)를 표시하는 육합상(六合相)을 창안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준제관음상(準提觀音像)과 현도만다라(現圖曼茶羅)를 채택하려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대성사는 창종원년에 이룩한 큰 업적기운데 하나가 역경편찬 사업이었다. 종단의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전 4권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 전 10권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밀교장경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현밀(顯密)의 경전에서 요목별로 발췌 번역하여 불교총전(佛教總典)이라는 제명으로 총지종의 교전(敎典)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다. 또 총지종의 신앙대상인 본존과 불사의식, 법의, 금가사 등을 제정 발표하고 창종 준비를 해 나갔다. 창종은 앞두고 법회를 위한 도량도 마련하였다. 현재의 사원 전신인 선교부를 전국 각지에 여려 곳 개설하고 마침내 1972년 12월 24일 밀교종의 창종이 이루어 졌다.

이와 함께 대성사의 교의 선포도 있었다. 법신(法身) 법신여래(大日如來)를 교주(敎主)로 하고, 육자 대명(六字大明)을 본존(本尊)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을 소의경전으로 하였다. 또한 태금(胎金) 양계(兩界)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육행(六行)을 수행 덕목으로 삼았다. 당상즉도 색심불이(當相即道 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 함으로써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운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 하였다. 시시불사·처처불공법(時時佛事 處處佛供法)으로 생활시 불법 불법시생활(生活時佛法 佛法時生活)의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후 1973년엔 8개 선교부를 개설하고 자성일 회향서원과 교도맹약 등을 제정하였다. 교도맹약은 부처님의 가지력에 일심 귀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오세대

제도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1974년 이후 5년 동안은 종단 제도를 더욱 확립시키는 시기였다. 종단의 각종 기구와 직제를 구성하고 승단의 강공회(講工會)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보은시법(報恩施法)의 실시, 재단법인의 설립, 자성일 대중동참불사법요 및 진택불사법요 등을 제정하고 오대서원과 회향문을 자곡하여 공식시간과 기타 의식에 사용하게 했다.

대성사는 1974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칠일간 종단등록과 재단 설립허가를 위한 철야정진에 들어갔다. 종단운영과 회계인사 등 종무일체를 투명하게 하고 불법홍포와 정재수호를 위한 뜻이 담겨 있었다. 대성사의 공명정대한 자세와 청정수행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종단발전 위해 부단한 정진

1975년에는 진호국가불사의궤 제정, 천도관정법 실시, 불교총전 초판 발행, 승직법제정, 자성학교 개설, 법장원 개원, 투명단증법 실시, 친불가 제작 완료 등의 불사가 이루어 졌다. 1977년에는 총본산 총지사 건립불사, 신축사원 건물 옥상에 법신불의 상징인 입체원상 건립, 밀교장경 초판 발행, 성불탑을 건설하였고, 1979년 총지대학 건설 기금 조성, 각종 진언결인법 채택, 등을 실시했다.

대성사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종비법(四種秘法)의 창안, 오세대제도법(五世帶濟度法) 시행 등으로 교상과 사상을 더욱 체계화하고 교화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승의 인사이동과 신규스승을 임명을 통해 활발한 교회활동이 가능케 했다. 즉 제도와 의궤 정비 이후 본격적으로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창종 8년이 되던 해인 1980년 9월 8일 원정 대성사는 종단발전의 무수한 불사들을 남겨 둔 채 열반에 들었다.

이와 같은 창종역사와 원정 대성사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성사의 종단발전을 위한 정진과 노고를 여실히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서원코 제도할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가 가이 없으니 서원코 끊을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법문이 다함이 없으니 서원코 배울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 없는 참 도를 서원코 이를 것이다.

▶ 말이 패역하게 나가면 또한 패역하게 들어오고 재물이 패역하게 들어오면 또한 패역하게 나가는 나이다.

▶ 희사공덕은 어떠한 것이나?

답: 현재에는 곤란자양 우환질병을 미리 없애서 소멸하고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드러난 상벌 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회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크며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차면 나의 집도 넓고 크고 둥글고 차느니라.

▶ 경에 이르되, 남의 악한 것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하여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답: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 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참회하면 나의 허물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곧 없어지느니라. 나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이 없으면 과가 없을 것 아니니 나의 적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 부처님이 탄생하시와 곧 일곱 자국을 동쪽으로 걸음하시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시오되 나는 사람과 하늘과 아수라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가장 우리라 하시다.[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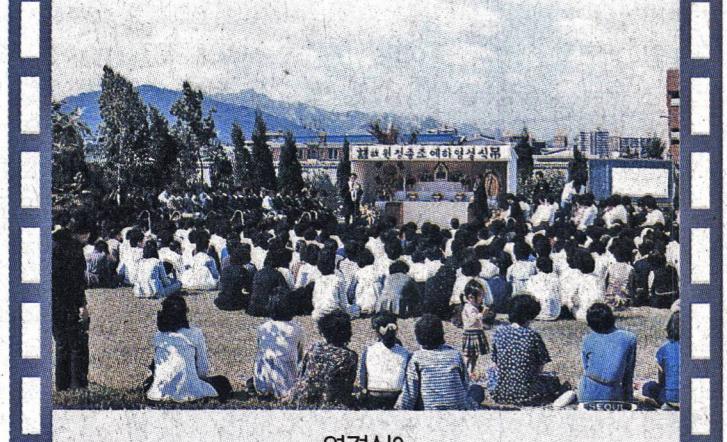
이제 이 삼계는 다 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중생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라. 이제 이곳에 모든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내리야 능히 구호하리라.[열반경]

▶ 부처님이 말씀하시오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윤택하게 함과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 고통을 떠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이지 말며· 자기의 자리를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재물을 도적질 말며·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하지 말며· 자기 말의 신용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를 속이지 말며· 자기에게 회합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에게 이 간을 하지 말며 스스로 만족을 받으려거든 탐욕을 내지 말지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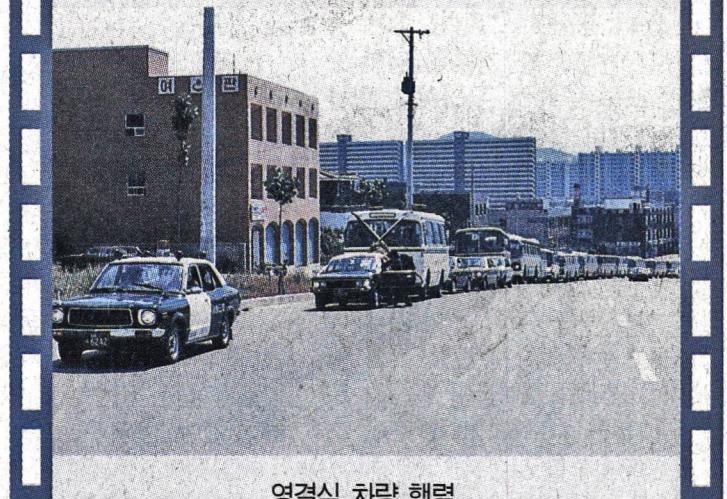
원정 대성사 영결식.



영결식2.



영결식3.



영결식 차량 행렬.



원정 종조 유물.



원정 종조 유물2.



원정 종조 유물3.